



겨레의 딸들이여 !
사천의 다짐모아
여성자주화의 새아침으로
진군하자 !



통일염원 46년 3월

총여학생회장후보이정희선거운동본부

여성 운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1. 들어가며

여성 문제란 여성이기 때문에 가지는 억압과 모순의 총체, 즉, 여성이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과정에서 나서게 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여성 운동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억압과 모순을 타파하고 여성을 자주적인 주체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여성운동을 남녀 평등만을 이야기하는 (보통 가사노동의 분담을 연상합니다.) 운동으로 이해하던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는 50년대 이후 이전까지의 혁명적 여성 운동의 흐름이 단절되고, 서구의 자유주의 여성 운동이나 급진주의 여성 운동이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 관제 어용적인 여성 운동만이 존재하면서 이들의 활동 내용과 방식이 영향을 미쳤던 데서 결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 여성 운동은 그때까지의 어용적이었던 여성 운동과 분리의 선을 긋고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자기 전환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민주·통일의 이념을 여성 운동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실천적인 면에서도 전체 변혁 운동의 흐름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도가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모순의 해결은 여성이 존재하는 사회 현실의 변화를 더불어 생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여성 자주화의 사상과 실천적으로도 광범위한 여성들이 사회 모순에 눈을 뜨고 투쟁에 나서게 되었던 것은 여성 운동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뚜렷한 방향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 운동은 이념적, 실천적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명하고 실천적으로 풀어 보았던 내용은 아직도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며 이후의 힘찬 전진을 기약하면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2. 여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여성 문제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성은 조금 의존적이고 모자란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애기되기도 하고, 한 사람에게서는 벅찬 것일 수밖에 없는 3중의 역할(직장인, 어머니, 주부)의 역할을 거뜬하게 해내는 슈퍼 우먼인 듯 묘사되기도 합니다. 남녀의 차이가 생물학적 문제일 뿐 지적, 감성적, 인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진보적인 계층이라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당연히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모성의 기능조차도 여성이 혼자 감당해야 하고, 모성을 이유로 사회적 자기 실현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것이 또한 2천만 남한 여성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즉, 여성의 열등함을 끊임없이 유포시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2중·3중의 모순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성 문제의 발생 원인을 바라보는 데는 여러 가지 상이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성 문제가 남녀의 신체 구조의 차이, 즉, 생물학적 차이 자체를 없애는 것 (예를 들면 여성의 근력 강화, 동성 연애 등) 으로 보고 [급진주의 여성 운동론], 또, 어떤 사람은 남녀 차별의 관습이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생각을 변화시키고 법과 제도 변화만을 해결 대안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자유주의 여성 운동론]또, 여성 문제를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한 사회·역사적 문제로 파악하여 사회 변혁 운동 속에서 그 해결점을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와 가부장제라는 성차별 구조가 이중 체계로서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회주의 여성 운동론]

이상에서 여성 문제의 발생 원인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해결 방도와 주체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 문제에 대한 관점을 옳게 정립하는 것은 여성 운동을 편향에 빠지지 않고 끈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 문제를 옳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회적 문제도 그 자체만 고립적으로 파악해서는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하며 다른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자리매김하여 보았을 때에만 총체적인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생겨난 이후로, 인간 사회는 지배 구조를 유지, 강화시키려는 지배 세력의 기도와 이에 맞서는 피지배 계급의 저항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 사건, 인간의 행동은 계급적 성격을 반영하는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계급적 입장을 배제하고서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명한다는 것은 사회 자체의 존재 양식과 운동 형태에 근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과 유리된 이론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급 모순과 성 모순을 별개의 범주로 설정했던 이중 체계론의 경우, 사회의 주요한 모순인 계급 모순이 성 모순을 어떻게 규정짓고, 이 두 모순이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는 밝혀내고 있지 못함으로서 성 모순이 여타의 사회적 모순과 구별되어 따로 존재하는 듯이 사고하였습니다. 사물간의 존재적인 연관성을 부정하고 따로 운동 법칙을 가지는 성 모순이란 범주를 설정했던 것에서 이는 본질상 관념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 문제는 원래 착취 사회의 발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하는 매우 오래된 문제입니다. 인류가 무계급 사회에서 계급 사회로 진화하면서 그때까지 단순한 생물학적 차이로만 인식되었던 남녀의 차이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차이로 옮겨지면서 사회의 착취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형태로 여성 차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매 시기 여성 차별의 구체적 형태와 주요한 지배 세력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여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배 세력은 성의 차이를 구실로 하여 자기의 지배 구조를 온존,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을 부당하게 유린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성 문제는 단순한 여성 대 남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의 개혁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1986년 5월 부천에서 일어났던 일은 한 여성과 한 경찰의 문제로 보아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을 읽어낼 수 없으며 86년을 기점으로 장기 집권을 노골적으로 확립하기 시작했던 독재 정권과 그를 위한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 공세 속에서 빚어졌던 사건으로 보았을 때 올바른 해명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 평등을 외쳤던 여러 형태의 여성 운동이 있었지만, 여성 운동의 당파성을 가름하는 것은 바로 성 모순과 사회 전체적 모순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습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전체 변혁의 과제를 도외시한 여성 운동이 반동화의 길에 빠지게 되는 예를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남한의 여성 문제

그러하다면 이제 과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 문제가 어떤 세력에 의해 어떠한 매카니즘으로 작용하는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타도 대상과 목표를 뚜렷이 하는 과정에서 여성 운동은 자기의 이념성을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남한의 여성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면 남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

사회적 운동은 인간 실천의 합법적성을 가집니다. 민중의 현실적 처지와 인간의 자주성은 실천을 필연화시킵니다. 그러나, 이 필연성은 자연의 운동 법칙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필연성 속에는 인간의 자주성을 고양시키고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필연을 현실로 바꾸어 내는 힘은 주체의 목적의식적인 운동에 의해서만 생겨나며, 여성 운동에 있어서도 여성 주체 스스로의 추동력이 없이 운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 사회현실에 조용하는 인간 실천을 추동해 내는 과정 자체가 사회 운동의 합법적인 과정이며, 이 합법적성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풀어나가는 운동만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여성의 자주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높이고 고양시키는 관점에서 운동의 전 과정을 배치하고 실천 과정에서 이러한 관점을 구현해 낼 때만이 운동은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성자주화운동으로 끈게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성의 자주성에 대한 신뢰와 자주성실현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여성을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에 확고히 의거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사회 제도의 교재로 여성들의 사회적 노동 참여를 해결하려고 했던 경우라든가 혹은 전체경제 발전만을 우선시하면서 당장의 효율적인 경제 운영을 위하여 여성들을 가정에 불잡으려고 했던 경우가 진보적 사회 운동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광범위한 대중이 역사의 주체로 전면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성 또한 역사의 주체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자주화 운동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운동이며, 역사발전을 주체의 힘으로 끌어당겨 이끌어 나가는 운동입니다. 여성 운동은 여성 자주화 운동이며 이는 궁극적인 인간 해방의 이념과 일치합니다. 여성의 자주성을 높이는 것은 인류가 줄기차게 추진해야 하는 과업이며 혁명의 매 시기마다 여성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성 운동은 사회 속에서 남녀의 지위와 역할의 차이를 없애고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인 여성이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며, 이는 민중 정권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과업입니다.

현 단계 식민지 상황에서는 여성운동은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것에 자기의 일차적인 과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합니다.

첫째로, 제국주의는 현 시기 남한 여성의 억압과 모순의 주요한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들이 자주적 주체로 서고자 하는 움직임을 제국주의자들은 각종의 수단을 동원하여 막고 있으며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질서는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는 직접적인 모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여성들은 정치·경제·문화적인 면에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국주의는 축출하고 이후 건설될 민족자주정권에서만 여성의 사회적 해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한의 국가 권력은 독재 정권입니다. 독재라는 말은 '민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는 국가 주권이 민중에게 있지 않고 소수 독재자의 손에 독점되어 있으며 민중들의 자기 권리를 찾고자 하는 정당한 움직임을 물리력과 여타의 수단을 이용하여 탄압하고 민중과의 적대적 모순 구조를 정권의 존재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민주 정부는 민중들의 진보적 움직임을 우호적 입장에서 지지 지원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정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민주 정부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고자 하는 제국주의가 축출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민주 정부는 민족 자주의 성격을 가져야만 성립 가능합니다.

여성들의 자주적 움직임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 실현 역시 현재의 독재 정권 하에서는 온전히 보장될 수 없으며 민중에 의거한 민족자주정권이 수립되어야만이 여성들의 사회적 해

⇒ P. 603

들은 이러한 임시직, 가내 수공업 등에 자기 노동력을 헐값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는 여성 노동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세째로, 여성들은 양키지질문화, 향락문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화는 사회 구조의 반영입니다. 또한 문화는 능동적으로 작용하여 사회구조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문화에도 계급적 성격이 투영되게 됩니다. 남한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문화, 양키지질문화, 향락 문화가 유입되어 민중들의 건강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일차적이고 감각적인 문화로 민중들의 의식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워야 할 성이 하나의 상품으로 되어 변질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 상품화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여성들은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의 양상은 우리 생활 깊숙이까지 침투하여 건강한 인간 관계에 질곡으로 되고 때로는 폭력적인 양상까지도 띠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남한 여성 중 숫적으로 작다고 할 수 없는 100만이 넘는 매춘 여성입니다. 원래 매춘이 우리 나라에 도입되고 번져가기 시작한 것은 외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을 맺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1910년대 일제가 대규모로 공창, 사창을 이식시킨 이후로, 정신대, 양공주 등 외세의 성침탈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춘은 초역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 역사적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주한 미군이 이 땅에 가지고 들어왔던 AIDS, 포르노, 마약 등의 범람은 외세 문화가 어떻게 남한을 오염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예입니다.

네째로, 분단과 전쟁의 상황에서 여성들은 유린당했습니다. 분단의 현실과 한국 전쟁은 민족사적 비극입니다. 분단과 전쟁은 현재도 남·북한 민중 모두에게 큰 질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쟁상황에서 가장 피해받는 계층은 청년과 여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분단과 전쟁의 주범이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면 분단과 전쟁의 상황에서 여성을 유린했던 적 또한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남한에서의 여성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피상적으로나마 접근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여성 현실과 여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은 많이 부족하며,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요하게 의도했던 바는 남한에서의 여성 문제가 남한의 실질적 지배자와 어떤 연관을 맺고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했었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아직 충분히 해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면서 여성 문제 또한 식민지 상황과 결부시켜 해석하려는 노력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여성 운동의 이념

여성 운동은 여성을 주체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여성 운동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운동의 주체에 의해 개념 규정을 하게 됩니다. 여성 독자적인 이해와 요구를 내걸지 않았더라도 여성을 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와 노력을 여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여성 이론의 성과에 의해 사회구조적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여성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신비화되고 관념적이었던 사회역사관에서 벗어나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문제로 베일을 벗겨낸 접근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이의 업적으로 인하여 여성 운동은 사회변혁운동으로 자리매김되는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변혁 속에서 여성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명제는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자주적 주체로 전화하는 과정에 대한 사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여성 문제는 전체 사회변혁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으로 여기는 편향을 겪기도 했습니다.

남한에서는 45년 이후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남한의 정치, 경제, 문화적 현실, 그리고 분단의 상황이라는 현실을 보면서 남한을 식민지 사회로, 그리고 남한의 실질적 지배자는 미제국주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자'라는 말의 의미는 한 사회에 대해 가장 규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며,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창조해 내고 집행해내는 데 가장 사활적 이해를 가지고 수행하는 세력임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의 여성 문제 또한 미제의 구도에 의해 기본적인 틀이 짜여지고 규정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의 여성 문제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분단의 현실 곳곳에서 다각도로 나타납니다.

첫째, 여성들은 정치적인 면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인간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정치란 사회에서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기능이며, 정치의 주인으로 된다는 것은 인간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관건이 되는 문제입니다. 식민지 사회에서 국가 권력은 제국주의와 일부 매관 세력에 독점되어 있으며 대다수 민중들은 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한 정권의 성립과정,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의 입안, 결정이 누구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정치적인 면에서 민중들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현실은 민중들에게는 현실적인 삶의 질곡으로 작용하게 되며 민중들은 변혁의지를 가지고 의식화, 조직화되어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민중들의 변혁의지를 끊임없이 저지하려 하고 있으며, 남한에서 그것의 주요한 방식은 크게 물리력과 반공, 반북이데올로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민중들에 대한 분할 통치, 분열 정책을 쓰며 그것의 일 형태로 남녀 분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현상적인 남녀 차이를 이용하여 본질적인 계급간의 모순 구조를 은폐하려 한다면, 남성들의 권위 의식을 이용하여 여성들에게 억압을 행하는 것 등은 종종 있어 왔던 사례들입니다. 또한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킵니다. '여자가 무슨?...' '여자의 임무는 가정일'이라는 논리를 법제도로, 교육으로, 사회 관습으로 심어 나가면서 여성들을 적극적이고 변혁지향적인 인간이 아닌 온순하고 소극적인 인간으로 길들여 내는 것입니다. 인구의 반이 잠잠해있다면 지배자들이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는 것은 훨씬 용이한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차별 임금과 무보수 가사 노동 속에서 2중 3중으로 착취받고 있습니다. 식민지 남한 경제 구조는 심한 기형성과 종속성을 띠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민중들의 삶을 압박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서 대다수 여성들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당장 생각해 보아도 5·60년대 이른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불리는 방직·섬유·전자 등의 업종에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들이 착취당했으며, 80년대 들어와 제국주의의 분비물인 향락·유흥 산업에 여성들이 혹사당하고 있는 현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식민지 경제의 부담 위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모순을 전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민중 여성들에게 노동의 문제는 남편의 수입만으로 생활해 나갈 수 없는 조건에서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보조적'이라는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로 차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 속에서 가사 노동은 아무런 사회적 댓가도 받지 못하고 무보수로 해내야 합니다. 차별 임금과 무보수 가사노동으로 인해 자본가들은 헐값에 여성 노동력을 구입하게 되고 여성들의 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저임금구조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모성은 여성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차별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은 단순직, 임시직으로 직종을 크게 제한받게 됩니다. 도시빈민여성⇒ p.45/로

P. 3에서
남녀

방과 남녀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 위에서 여성들의 주체적 노력이 결합되어 이후보다 더 높은 혁명 단계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인적인·물적인 토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즉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 시기 남한의 여성 운동은 민족 해방을 자기의 선차적인 과제로 가지게 되며 이는 여성 해방을 가능케 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도입니다.

민족해방운동으로 여성 운동을 규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성 운동의 동력과 대상을 규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여성 운동에는 성 모순이라는 범주가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설정되어 마치 사회 속에서 보다 규정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권력과 생산수단의 관계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계급이라는 범주를 뛰어넘어 여성이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여성 운동의 동력을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경향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을 뛰어넘은 보편적인 범여성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이는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현 시기 남한 여성 운동의 동력에는 민족해방운동의 동력이 되는 민중여성을 주력군으로 하는 광범위한 여성대중들이 망라될 것입니다. 또한 남한 여성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매관세력(여기에는 여성도 포함됩니다)을 여성 운동의 타도대상으로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5. 90년의 정세와 민족민주운동의 전개과정

남한에서 정세는 좌우하는 두 축은 미제의 식민지 정책 구도와 민족민주 운동의 진출입니다.

이제의 식민지 지배를 안정화하려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보수대연합 구성과 두 개의 한국 조작책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7년 전국민적 항쟁으로 식민지 지배권력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부정 선거와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 등극한 노태우 정권은 출범 이후로 계속되는 전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광주학살원흉처단과 5공 비리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로 노태우 파쇼정권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십년간 친미세력을 내세워 식민지통치를 실시해 온 미국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었으며 이에 기반적인 정계개편, 노태우를 주축으로 하고 개인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사이비 정치가 김영삼과 유신 본당 김종필을 야합시켜 이른바 신당결성이라는 이름으로 친미보수대연합을 결성했던 것입니다. 2년에 걸친 여소야대의 정국 속에서 저들의 집권통치가 여러가지 걸림돌에 부딪히고 날이감에 따라 열세에 빠져 들어가는 데 당황한 노태우 집단은 민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 공화당을 흡수통합함으로써 위기를 해소하고 집권을 원활히 유지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민주 대파쇼, 애국 대 매국의 대결 상황을 혁신세력과 보수세력의 대립구도인 듯이 여론을 오도해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의 명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한국조작 책동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한국을 기정사실화시켜 식민지 지배 질서를 안정화시키고 이후의 더욱 더 악랄한 군사적 지배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성된 보수대연합의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노정권은 남북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대화창구일원화논리를 정당화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통일민주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함께 국제간의 흐름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분단고착화 기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는 남북한 교차승인 시도로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에 맞서는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은 이러한 미제의 음모를 생생히 폭로하고 반미자주화투쟁에 주력해야 합니다. 민족민주운동의 발전 정도는 반미 의식의 확산과 조직화 정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80년 광주를 거치면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는 86년 학생운동이 과감하게 터뜨린 반미구호로 이어졌습니다. 87년 6월 항쟁의 '자주 없이 민주 없다'라는 구호와 함께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한 반미의식은 미국의 무리한 수입개방요구, 올림픽때의 미국의 무례한 행동 등을 통해 점차 국민들 사이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반미운동을 냉정하게 평가해 본다면 반미감정은 확산되었지만 의식적이고 총체적인 반미투쟁의 경험은 그다지 많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87년 이후 각계 각층 대중들은 눈부신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소극적이고 패배적인 삶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자기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자주적인 주체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히 89년에는 노동자, 농민, 교사, 노점상 등 광범위한 계급 계층이 투쟁의 전선으로 진출했으며 이제 기층 민중들은 사회 변혁의 유력한 담당자로서의 모습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90년은 민족민주운동이 자연발생적 수준에서 목적의식적인 운동으로의 자기발전을 모색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각계각층 지도핵심들의 역할을 높여 낼 것이 요구되며, 타 계급·계층과의 연대 투쟁·공동투쟁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계급 계층의 선진적인 요구를 모아낼 수 있는 연합 전선체적인 조직의 강화도 절박한 요구입니다.

6. 여성 운동의 현 위치와 방향

운동이 발전해 나가면서 이념적인 목표가 각 계급 계층 속에 뚜렷하게 자리잡게 됩니다. 개별적이고 파편적이었던 각 계급 계층의 이해와 요구가 혁명운동과 연관을 맺으면서 변혁의 이념은 통일적인 상으로 정립되어 나가며, 막연했던 현실 변혁의 당위가 투쟁 속에서 체화되는 절박한 요구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각 계급 계층의 요구도 보다 구체화되고 풍부화되게 됩니다. 혁명의 진전과 함께 구체화된 이해와 요구는 구현해 낼 수 있는 주체를 마련하면서 이후 도래한 사회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혁명은 파괴가 아닌 건설과 창조의 과정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여성 운동은 80년도 중반 이후 변혁운동으로서의 자기모색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여성 문제에 대한 접근을 피했으며 실천에서도 민족민주운동의 흐름과 같이 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89년에 여성들의 진출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변혁운동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높아졌으며 대표적인 몇 가지만 꼽아 보더라도 한국 피코·신애전자 수미다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민가협 어머니들의 투쟁 6월의 여인의 파고다 공원 시위, 여성 민우회의 전교조 지원투쟁, 여성농민들의 투쟁이 있었으며 특히 임수경 대표의 평양 축전 참가 투쟁은 이전의 소극적이고 나약한 여성이 아닌, 정의의 위해 싸워나가는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이 땅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고 여성의 자주적 권리와 평등한 삶을 모색하기 위한 의식화 작업을 활발히 진행시켰으며 사회 정의와 여성해방을 위한 여성들의 자주적 조직들도 새로이 생기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의 놀라운 진출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직까지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뚜렷한 조직적 움직임으로 결집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인 운동의 합법칙성에 의거하여 여성 운동도 이후 뚜렷한 자기 이념을 가지면서 보다 구체적인 자기 내용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혁명의 과정에서 각 계급 계층은 자신들의 요구가 혁명의 목표와 부합되는 것임을 깨닫고 혁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이 하나하나의 과정은 대중을 혁명에 동원하는 것이 아닌 대중이 스스로 자각하여 혁명에 주도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위치지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 또한 사회적 처지 속에서 혁명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여성으로서의 처지와 어머니, 아내, 딸로서의 처지, 그리고 민족의 성원으로서의 처지는 여성이 혁명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여러가지 계기로써 작용할 것입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경험만 보더라도 여성들은 조국의 딸로서 나라를 구하고 부모, 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구국운동에 헌신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지배 세력에 의해 구축된 사회적 질서에 의하여 혁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동참하기 어려운 사회적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타국의 혁명과정에서 지배세력이 여성들의 정치의식의 후진성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집중 공략하여 반동의 아성으로 만들어 내는 경우를 종종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여성들의 정치 후진성을 이용하여 독재 정권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던 시도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이러한 성향은 여성들이 본질적으로 그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여성들이 이러한 사회적 조건은 깨뜨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다 치열한 고민을 해야하며, 다양하고 창조적인 내용과 형식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구국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그들의 처지에 적합한 실천적 내용과 형식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여성을 주체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여성 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성 운동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째로, 제국주의에 의한 여성 억압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떨쳐 나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성 운동에는 실천적으로 두 가지 극단적인 분리의 선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체 반혁명 운동, 당면한 높은 수준의 정치 투쟁에 여성 운동을 하는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것과 여성들의 생존권 지원 투쟁법 제도개선의 낮은 수준이 투쟁이 양극화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즉, 여성운동이 민족해방운동에서 가지는 독자적 내용; 여성 억압을 식민지 사회 구조와 연결시켜 폭로해 내려는 투쟁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하였습니다. 민족해방운동이 발전하면서 각 부분 운동들은 자기의 내용성 속에서 민족해방운동의 이념성을 결합시켜 나가게 될 것이며, 여성운동 또한 민족해방운동의 이념을 자기의 내용으로 담아 내려는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 평등의 실현입니다. 식민지 지배 질서를 청산하고 다수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현 단계 혁명 운동에서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 평등의 실현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여성에게 사회적 해방과 남녀 평등이 실현되어야만이 이후 사회가 인구의 반절인 여성을 배제시키지 않고, 다수에 의해 건설되고 움직여 나가는 사회로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성 운동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를 자각할 수 있게 하는 광범위한 여성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사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일 노동·동일 임금·모성 보호와 사회 전반에 걸친 남녀 차별은 철폐하는 것이 조건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7. 맺으며

이상에서 그간의 여성 운동에 대해 제기되었던 문제의식을 산만하게나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으로 구체화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실천에서의 관점 정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관악 여학우와 여러분의 치열한 문제 의식과 고민의 함으로 이후 사업에서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학생 운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1. 여대생의 존재와 여학생운동의 개념.
2. 학생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
 - 1) 학생부문계열운동이란 무엇인가?
 - 2) 학생부문계열운동의 역할
 - 3) 학생부문계열운동의 현황과 평가
 - 4) 학생부문계열운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
 - 5) 학생운동을 대중화, 강화시키는 여학생운동의 실천적 성과들.
3. 여성운동의 선도부대로서의 여학생운동.
4. 여학생운동의 현수준·여대협을 중심으로
 - 1) 여학생들이 의식화·조직화정도.
 - 2) 대중투쟁의 계획성과 학우들과의 결합력
 - 3) 운동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주체의 활동수준
5.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1. 여대생의 존재와 여학생운동의 개념

여학생운동에 대하여 알고자 한다면, 여학생들의 존재적 특성을 하나하나 세밀히 파악하고 그에 기반하여 여학생운동의 개념을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대생의 존재와 특성은 일차적으로는 남한 여성으로서의 처지와 실정에 의해 규정됩니다. 남한 여성들은 제국주의와 매관세력에 의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한 소외와 법적 무권리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제국주의하에서의 산업의 수직적 재편과정을 통하여 미·일 독점자본에 예속되어 있는 경제구조속에서 세계제일의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침략, 우민화정책인 제국주의의 문화침탈에 의하여 퇴폐·향락·폭력의 사회분위기가 만연함으로써 여성들은 성상품화, 성폭력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한 여성의 처지는 여대생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첫째로, 여대생은 식민지 근로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층민중여성들에 비하여 특권의식을 가지며, 결혼을 통하여 계층상승을 꿈꾸게 됩니다. '여성의 본연의 임무는 가정일'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대다수 미혼여성들에게는 '결혼 제일주의'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게 되는데, 여대생은 여타 계급계층 여성들보다 결혼을 통한 계층상승이 보다 쉬운 조건에서 결혼에 대한 기대가 사치와 허영을 조장하여 소비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같은 대학생과 결혼하더라도 계층상승을 통해 지배계급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을 볼 때, 결혼을 통한 계층상승의 욕구는 허황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대생의 이러한 허위의식은 청년학생 본연의 임무인 진리에 대한 탐구와 열정을 현저히 멀어뜨리며, 사회전반적인 문제 특히 정치적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민족의 삶과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무지하게 되고, 결국은 지배자의 의도대로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대생은 교육을 통하여 제공된 의식을 주입 받고 소극성, 수동성, 의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 학문활동, 자치활동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학원내에서의 남성위주의 문화 풍토, 공간등에 의해 부채질되기도 합니다.

셋째로, 여대생은 남한 여성이 당하는 경제적 착취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본연의 임무는 가정일'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사회진출에서부터 여대생을 좌절시킵니다. 대학을 상품화시키려는 사학과 자본의 논리와 예비 사무전문직 노동자의 급증을 통하여 사무전문직 노동자의 임금하락과 노동통제를 기도하는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발생한 고학력 실업의 문제가 여성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만 고용하려는 성차별의 문제, 여성노동착취의 문제를 포함하면서 여대생에게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89년 50대기업 대졸신입사원 중 여성은 4.1%에 지나지 않으나 전체 여성노동인구는 전체 노동자의 40%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까. 또한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식의 어려운 취업 이후에도 여성차별과 수모, 승진기회의 박탈, 모성보호의 소홀 등은 여성을 직장에서 가정으로 강제로 쫓아내어, 여성은 평생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여대생은 그 존재로부터 해방의 동력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대생의 문제가 원래여성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억압으로부터 희생된 문제이므로 이 억압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여대생은 가장 진보적인 학문과 가장 민주적인 활동, 그리고 가장 높은 정치세력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활동한다는 점이다. 청년학도로서의 여대생의 위치는 여성해방의 도전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지향과 조건을 부여해주었으며, 자신의 처지를 옹기 이해한다면 잠재된 혁명성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결국 여학생운동은 첫째, 남녀평등의 완전한 실현과 차별을 조장하는 지배세력을 타도함으로써 이 사회의 완전한 해방을 이룩하는 것 둘째, (학생으로서 진보적이며 선진적인 학문, 사상, 이론, 기술의 체득과 이로부터 생산활동에 동등한 참여를 통해 사회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셋째, 학원내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의식과 구조의 철폐를 통한 민주화의 실현) 이 세가지를 자기 지향으로 하는 운동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여학생 스스로 자주적인 대중조직의 건설을 통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투쟁해 나가는 운동입니다. 또한 학생부문의 하 나로서 학생운동의 대중화·강화를 이루어내며, 여성운동의 선도주자로서 여성운동을 절절하게 고양시켜내며 전체 구국운동에 복무해 나가는 운동인데,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2. 학생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생 운동

1) 학생부문계열운동이란 무엇인가?

학생 계열 부문운동이란 학생운동 내의 전공별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이라는 사회적 처지 이외의 또 다른 처지에 따라서 근거하는 학우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운동입니다.

학생대중은 사회적, 정치적 처지로서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학생이라는 신분 이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 진행되어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자기 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역사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또한 전공별 학문영역의 분화가 다양해지고, 그 전문화 정도가 엄청난 속도로 심화되면서 학생대중은 자신의 전공, 전문에 따라 특수한 성격을 가지게 되며 부문화된 이해와 요구를 선명하게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문화된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총화하여 전체 학생운동에 보다 더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복무하고자 하는 것이 학생 계열 운동입니다.

학생운동 속에서 또한 학생이면서 또다른 사회적 처지가 중첩되면서 또다른 처지에 근거하는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벌이는 운동이 부문운동입니다.

학생부문운동은 자신의 또 다른 처지에 근거하는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킴으로써 학생운동을 풍부화 강화하며 사회부문운동을 활성화, 전투화합니다. 이에 여학생운동, 종교학생부문운동, 학생문화부문운동, 학생언론출판부문운동이 있는데, 이 모두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여성, 문화예술인, 종교인, 언론인이라는 또다른 사회적 처지에 근거한 사람들의 운동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학생부문운동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조직화의 형태와 경로에 주목해 보면 여학생운동과 여타 다른 부문운동과는 일정하게 다릅니다.

즉, 문화·종교·언론인 등은 그 당사자의 결의에 의하여 얻어지는 사회적 처지로, 일단 결의하여 문화예술 동아리에 가입한다거나 대학신문사에 들어간다거나 했을 때는 문화인, 종교인,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처지를 자각하고 운동을 펼쳐나가게 되지만, 일단 그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일반의 청년 학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사회적 처지는 자신이 얻었다고 하여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버리겠다고 하여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평생동안 규정하는 문제이며, 더군다나 '여성'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의 담지자 모두가 문제해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학우 대중 스스로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조직형태를 원하게 되며 자생적으로 이러한 조직형태를 만들어나가게 됩니다. 이는 바로 자주적 대중조직인 '여학생회'의 형태이며, 이는 여학생대중이 있는 곳 어디에나 건설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문운동조직은 단위 학생회의 강화, 공간 체계내용의 풍부화로 귀결되는 계열운동조직과는 달리 이후에 건설될 통일전선체에 있어서도, 국가권력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내용과 체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문운동 자체가 학우들의 활동을 학생회 공간의 정치투쟁사업 일상 사업과 밀접히 결합시켜낼 수 있는 내용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즉 전체운동 속에서 그 부문운동이 가지는 지위와 역할을 강력적 요구로서 밝혀내고 정식화하여 자기조직이 책임지고 있는 학우들이 힘있게 학생회공간사업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단 확보된다면, 각 부문운동 조직의 대표가 공간체계의 의결기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각 부문운동조직의 성원이 자기 조직이 전체운동과 밀접히 결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높아지는 것과 아울러, 공간체계에서도 적극적으로 각 부문운동이 자체 내용성의 확보 속에서 공간과 밀접히 결합해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회에서는 더 많은 학우들의 더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집중시켜내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을 때 부문운동조직의 대표가 공간체계에 결합한다면 이 원칙은 더욱 잘 구현될 것입니다.

그동안 학생부문 계열운동에 대한 견해중에는 학생운동과 부문계열운동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여 학생부문 계열운동을 학생운동 속에서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위한 운동으로 보지 못하고 부문 계열운동의 상대적인 특수성이 학생운동과 분리되는 것처럼 보기도 하였으며 학생운동속에서 가지는 학생계열 부문운동의 독자적인 주체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대상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열운동과 부문운동의 차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계열운동과 부문운동을 동일시하며 또다른 자신의 사회적 처지에 근거한 독자적인 부문운동의 운동영역을 협소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학생운동속에서 학생계열, 부문운동이 유기적으로 복무하며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통일적인 이해를 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기반으로 계열운동과 부문운동의 상대적인 독자적 영역을 주체적으로 확보 개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2) 학생부문 계열운동의 역할

학생부문 계열운동은 학우 대중들이 자신의 전공별, 또다른 처지에 따른 부분적인 이해와 요구를 자신이 주인되어 실현해 나갑니다. 학생회 골간 조직을 통하여 각종 다기한 이해와 요구를 특수성을 보장하면서 수렴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여 전공별로 또다른 처지별로 자신의 조직을 구성하여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스스로 수렴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학생부문 계열운동은 학생운동의 대중화와 통일단결을 비상이 높이며 전체구국운동을 확대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합니다.

학생부문 계열운동은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다종다기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수렴, 대변 실현해야 합니다.

학생부문 계열운동은 이러한 학우들의 다종다기한 이해와 요구를 전공별, 또다른 처지에 따라 구체화 시키고 전면화시키며 이를 조직적으로 수렴 대변실현합니다. 여대협, 여대협, 여대협 미군철수투쟁, 법대협, 악법개폐, 인권개선투쟁, 서사협, 교직원출투쟁들이 실례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정서와 취향에 걸맞게 투쟁형태와 방식을 여러가지로 구사해야 합니다. 학생계열 부문운동은 자신의 조직대중의 계열별, 부문별 정서와 취향에 근거하고, 또한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투쟁형태를 아주 폭넓고 유연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만화전시회, 서타연공연, 노래패중심의 통일노래한마당 통일문학사상들의 문화적인 투쟁방법들의 다양화, 대중화와 심포지움 중소규모의 선전전, 자료집 발간등의 방법들을 주체의 준비정도에 근거하여 자립적으로 수행하면서 다각도로 대중들을 투쟁의 주체로 묶어 세우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문 계열운동은 학생운동의 통일단결을 아래로부터 튼튼히 이루어 내는데 커다란 힘을 발휘합니다. 각 학교간 이라는 다른 처지와 상이한 정서를 넘어서 학우 대중이 전공별로, 또다른 처지에 따라 공통된 처지와 정서, 취향, 기능에 근거하여 횡적으로 결합하기에 구체적이고 생활적인 연대를 보다 친밀하고 강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서총연 — 총학 — 단대 — 과동의 체계속에서 지연되기 쉽고 중간에 마모되기 쉬운 서총연의 통일적인 지도성을 서총연 — 계열, 부문조직 — 기층단위 체계를 통하여 보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학생계열, 부문운동은 전체 구국운동을 확대, 강화하는데 기여합니다. 학생부문 계열운동은 사회 각 계급계층분야운동에 능력있는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면서 사회 각 계급계층 분야운동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노래패, 풍물패, 연극패, 만화패등의 문화부문운동은 학생문화부문운동과 사회문화부문운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상호발전을 이루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서사협에서 발굴강화된 간부 및 학우들은 전교조의 노조원과 집행일꾼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학생종교부문에서 성장한 간부 학우들도 전체종교운동에서 많은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계열, 부문운동은 사회 전문분야로 진출하는 예비사회인으로서의 학우대중을 민주적 시민으로 의식화, 조직화합니다. 정치적으로 먼저 자각한 학우들을 포함하여 앞으로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진출하려는 학우들을 애국 민주주의에 기초한 전문별 내용으로 의식화, 조직화하여 민중의 교사자로서, 또 사회 각 분야에서 구국운동에 복무할 수 있는 자질과 의지를 갖춘 훌륭한 일꾼으로 단련시키며 사회적 진출의 전망을 밝혀줍니다.

또한 학생계열부문 운동이 대중운동으로서 전투적인 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가면서 각 사회운동에도 자극을 주며 관련 사회단체와 전투적으로 연대하기도 합니다. 여대협의 에이즈추방 미군철수투쟁은 여성운동을 변혁운동의 관점 하에 구국전선으로 발전지향시키고 있으며 서사협의 전교조 지지 투쟁은 전교조투쟁을 보다 힘있게 보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대협이

한미행정협정이 갖는 불평등협정으로의 본질을 폭로한 것도 이후 한국 법학운동이 나아가야 할 구국위업의 내용을 보다 전투화하는 데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청년학생들은 학생운동으로서의 일반적 처지에 근거하여 일반적 임무를 가지고, 그 속에서 자신의 전공과 또다른 처지에 따라 형성되는 규정에 근거하여 특수한 임무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적 임무와 특수한 임무는 상호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지도, 복무, 침투합니다.

하여 학생계열부문운동은 자신의 이해를 실현함과 아울러 전체 학생운동과 구국운동을 강화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3) 학생부문계열운동의 현황과 평가

현재 20여개의 부문계열조직들이 길게는 10년 이상, 짧게는 2-3년의 역사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만, 앞서 논의한 역할을 해낼 단초만을 가지고 있을 뿐, 제대로 수행해내지는 못한 것이 현 수준입니다.

이는 기간의 사업과정 중에 무엇이 가장 문제였던가를 되짚어볼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각각 고립분산적으로 진행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조직이든 단위 학생회의 풍부화와 올바른 자기 내용성의 확보에 기반한 골간 체계와의 결합을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고도 실천적인 해명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각 주체들의 사업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각 조직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화해보면, 일단은 각 부문계열운동이 자립적으로 가지는 자기 운동의 내용성들을 전체변혁운동의 과제를 기반으로 분석, 총화해내야 한다는 관점만 있을 뿐 실물화된 것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또 서총련과의 투쟁내용 공유, 효율적 일정 배치도 각 조직주체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고립분산적으로 행해져왔고 각 부문 계열운동조직 간 협조와 연대의 조직적 연관도 높지 못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학생계열부문운동의 발전에 대한 주체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각 학생계열부문운동들이 스스로 망치고 이 힘으로 서총련과 자주적으로 결합하려는 자세보다는 "서총련에서 내려오는 게 없나?" "서총련 계조국은 무엇이지?" 하는 자세가 온 연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총련에서도 계열부문조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계열부문조직들을 대상화한 오류도 있었습니다.

이는 89년 중반기에 서총련 계조국을 해소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서총련계조국 간 부들은 계열부문조직 속에서 활동하며 성장한 간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고분투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조국은 각 계열부문조직의 생활적인 이해와 요구를 총화시켜내고 수렴하는 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축전투쟁 때 각 계열부문조직이 자기 영역을 가지고 함께 결합한 것도 밑으로부터의 자기결의와 준비과정은 미흡했고 그보다는 서총련 집행체계를 통한 하향식 사업의 성격이 강했었습니다.

4) 학생부문계열운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

① 학생계열부문운동의 전체적인 전망을 명확히 내어야 합니다.

1) 각 계열부문 조직들이 갖는 독자적인 강령적 내용들을 변혁운동의 과제를 기반으로 총화 정식화시켜 단기적이고 단절적인 내용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내용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학생운동에 있어서 이 부문은 주체들의 현실적인 고민으로 되고 있으며, 이는 실천의 성과 속에서만 얻어질 것입니다.

2) 각 계열부문조직간의 형제적인 협조와 연대성을 드높이고 서총련과의 통일집중된 조직적 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운동 속에서 자리하는 계열, 부문운동의 자기 본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서총연 중앙의 지도력을 확보,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관건으로 제기됩니다. 또한 승리의 90년대에는 전면적인 진출을 해야 하기에 각 계열부문간의 이해와 요구가 분산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전체적인 통일성 속에서 자기의 영역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데서도 기인합니다.

Ⅲ) 서충연의 총투쟁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속에서 각계열부문조직의 사업내용과 형태, 시기는 통일적으로 배치,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만이 각 계열부문조직의 자기활동은 효율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전체 학생운동의 강화 발전에도 효과적으로 복무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전체적인 전망을 내오는 전 과정에서 자주적인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계열부문조직 자신이 누구로부터의 도움이나 지도를 바라기 이전에 자립적인 노력들을 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충연과 연대, 통일해 나가고 서충연에서는 이러한 주체들의 노력을 중심으로 계열, 부문사업에 대한 정책을 총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이미 각 학교에서 공간체제와 결합하고 있는 여학생운동은 이에 주도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② 핵심간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사람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됩니다. 조직체계를 잘 갖추어 놓고 사업전망을 훌륭히 세워 놓더라도 결국 간부가 있어야 조직도 운영되고 사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간부가 있어야 그 집단적인 노력과 지혜로 조직체제도 잘 꾸리고 사업전망도 창조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학생계열 부문운동의 전통에 비해 그 축적된 성과는 너무도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전망 하에 전문적으로 계열부문조직 속에서 활동하는 간부가 거의 없다는 것과 했던 것에서 크게 기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있고 나는 그 조직의 이러저러한 직위를 맡았으니까 임기 동안 활동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 식의 간부들의 형식적인 자세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열부문운동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갖추고, 계열부문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열과 성을 다 바치겠다는 의지를 굳게 다진 간부들이 투신자적 관점에서 계열부문운동에서 장기적으로 활동하는게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또 이러한 간부는 학생계열부문의 기층단위(과, 단대, 학회, 동아리 등)에서의 활동 경험이 충분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③ 연대공동투쟁을 통하여 연대의식을 드높이고 전체 구국운동에 복무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연대성을 드높이는 것과 함께 전체 사회변혁을 위해서 투쟁할 때만이 계열부문조직을 자신의 사회정치적 사명을 다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연대공동투쟁 속에서 동지애와 의리가 쌓여지며 연대의식도 비상이 고양됩니다.

④ 부분에서 전체로 조직을 건설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전체단위조직을 동일한 수준으로 연대의 틀 속에 묶어세우는 것보다 비교적 역량있는 단위 조직들이 먼저 연대하면서 모범을 창출해나가고 이를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사업수행에서도 전체가 동일한 수준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역량있는 단위에서 보다 많은 역량을 투여하고 조금 힘이 부족한 단위는 자체역량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꾸준히 연대조직에의 참여정도를 높여 나가도록 해야합니다.

5) 학생운동을 대중화, 강화시키는 여학생운동의 실천적 성과들

이상에서는 학생부운동으로서 여학생운동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여학생운동이 학생운동을 강화시키는가 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로는 청년학생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합니다. 청년학생운동에는 아직 참가하고 있지 못하지만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여학우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

해와 요구를 받들어 광범하게 여성문제학습 소모임을 만들고 이들의 요구에 맞는 일상사업, 투쟁사업들을 해내며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그것을 전체운동에 대한 의지로 끌어올리며 인간답게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년학생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여학생운동은 청년학생운동의 강화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흔히 여학생회에서 활동하는 학우들은 다른 장에 있는 학우들보다 비교적 투쟁력이 떨어집니다. 기층 여학생모임으로 내려가 보아도 그 모임의 정치의식수준이 일정 보장되는 곳은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여학생운동을 한다고 하여도 청년학생운동의 강화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여학생운동의 내용을 전체운동 속에서 올바르게 잡아내어, 여학우들이 청년여학생이라는 자신의 처지에 근거하여 투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하여 여학생들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로서 투쟁을 벌이고 이로부터 청년학생운동의 모범으로 서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타계급계층 여성들에 대한 연대성의 확보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노동자가족, 도시빈민여성, 민가협 어머니 등 여학생들보다 정치의식수준이 낮고 여학생문제에 대한 이해도도 낮으며, 동일한 계급계층 남성들보다 보통은 정치의식이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번 적들과 맞서면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타협없이 끈질기게 싸워나가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투쟁은 각 계급계층별 투쟁의 기폭제가 되고 여성들은 자기 계급계층의 투쟁에서 승리를 전취해내는 힘이 되며, 그만큼 여성들은 민족민주운동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갑니다. 이들의 투쟁은 여성의 자주성을 높이고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로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운동, 즉 여성운동 그 자체입니다.

여학생들이 아직까지 민중여성들처럼 청년학생운동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높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과 동일한 여성, 정치에는 무관심하고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할 줄 알았던 여성이 구국투쟁에 나서는 모습을 보며 민중여성과의 연대성을 획득해나간다면, 그들을 따라 배우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민중여성들과의 연대성을 높여나가며 민중여성들의 단결투쟁, 결사항전투쟁의 모범을 배우고 이것이 참된 조국의 딸의 모습임을 여학우들에게 심어준다면, 여학생들은 틀림없이 청년학생운동 속에서 단결투쟁의 모범으로 설 수 있습니다. (민중여성들과의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후에 사업 속에서 더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은 평범한 여학생들은 비록 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수준에 맞게 주어지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광범한 투쟁의 공감대를 형성해내면서, 투쟁의 최전선에 선 학우들을 지지 업호해 줍니다. 교문투쟁시 조직적으로 돌격고 물량 운반하고 의료활동 등의 여학우들의 활동이 대중투쟁의 촉발·상승에 있어 큰 힘이 됨을 전남대 등의 경험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대중투쟁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여학생운동에 있어서 평범한 여학우들의 힘을 모아내는 대중투쟁의 전개는 사활의 문제이며, 이를 벌여낼 때만이 여학생노동이 청년학생운동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말로서가 아닌 실천으로서 입증될 것입니다.

3. 여성운동의 선도부대로서의 여학생운동

남한의 청년학생은 우리 민족해방투쟁의 역사에서 엄청난 역할들을 해냈습니다.
이에 참가하여 높은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여학우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학생

이라는 집단 전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극적인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물론 허위의식이 크기는 하지만, 여학생 역시 청년학생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민중여성들과의 연대성을 획득하여 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투쟁성을 배운다면 40만의 여학생들은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식민지 청년 여학생으로서의 자주적 존재로 변화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학생들의 가능성을 인정할 때, 여학생은 어떤 계급계층 여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세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학생들은 취업차별철폐싸움등 자신의 경제적 이해에 기반한 투쟁을 전체 여성의 문제를 인식한 속에서 벌이며, 전체 여성들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위한 투쟁을 실제적인 힘으로써 고무시켜 줍니다. 또한 여학생들은 높은 정치의식에 기반하여 타 계급계층 여성들의 투쟁을 지지,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계속적으로 그들과의 연대의 수준을 높여나가면서 전체 여성운동이 당면 정치투쟁과 구국투쟁에도 밀접히 결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에이즈 추방 투쟁등을 한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투쟁에는 다양한 수준의 단체들이 참가하였지만, 여대협은 그 속에서 에이즈 문제를 미군의 문제와 연결시켜 제기하면서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상승발전시켜내고자 하였습니다. 그 투쟁 자체에 대한 평가는 더욱 세밀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투쟁에 있어서 전체 구국운동의 관점, 반미자주화 투쟁의 관점을 유지하고 투쟁을 상승발전시켜 내려간 것은 여성운동에서 여대협의 지위와 역할이 어떠해야하는가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학생운동도 매시기마다 전체 투쟁과의 유기적 연관 속에서 자신의 내용을 풀어나가지는 못하고 있고 전체여성운동이 정치투쟁과 결합하는 것도 활동가 일부가 그 당 정치투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서 논한 여학생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것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그 대중적 힘을 가지고 여성운동의 선도부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여학생운동의 현 수준—여대협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여학생운동의 현 수준은 어떠하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학생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정도, 대중투쟁의 계획성과 학우들과의 결합력, 운동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주체의 활동수준의 세가지 틀로 현 수준을 파악해봅시다.

1) 여학생들의 의식화, 조직화 정도

여기에서 말하는 의식화란 여학생들이 자신의 처지와 실정을 옳게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구조와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화의 첫 출발은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지만 억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구체화하여 억압하는 자는 누구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억압하는가? 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수반해야만 해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분명하게 제기하고 '해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실천적 결의, 이를 위해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자주'의식'을 획득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학원에서의 의식화 정도는 그리 높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여대생은 의존성이 강하고 개인주의적이며 집단성, 규율성이 부족하고 모든 활동에서 소극적입니다. 또한 취업문제와 같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실질적인 문제에서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조직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마음에 맞는 학우들끼리 소모임을 갖는 수준이며 주요한 화제거리도 연애나 결혼, TV, 영화이야기 등이며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과 이해 정도가 별로 높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의식화의 내용은 생활상에서 느끼는 문제를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이들과는 좀 구별되는 학우들로서 주로 여학생회 활동을 하거나, 과 단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우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과학적 세계관을 확보하고자 하며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스스로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학우들입니다.

그러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은 단결투쟁의 결의로까지 발전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학우들에게는 자신의 투쟁결의 수준에 맞게 여성문제인식정도를 높여내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전의식을 보다 많은 대중에게 전파할 계획을 가지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대중활동속에서 더욱 풍부한 내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의식화는 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대중투쟁 속에서 결합되어야 할 것이며, 연대투쟁의 발전·강화속에서만 연대의식은 고양되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화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조직화된 투쟁만이 지배자들이 강고하게 구축해 놓은 지배력에 항거할 힘을 갖게 하며 나아가 운동의 결정적 승리를 담보해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학생운동의 조직화 정도는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우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해내고자 하는 활동을 조직화하고자 할 때 이러한 부분을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본적인 회체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소모임도 뚜렷한 자기 지향점이 없는 '친목도모' 수준을 뛰어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여학생회에서 생산하는 정책이 여학우들과 결합하기 힘들고, 올바른 정책생산을 했다 할지라도 집행력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각 학교에서의 이러한 실정은 연대 단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연대 투쟁을 독자적으로 계획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학생회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행사위주의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어떻게 하면 조직을 강화할 수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2) 대중투쟁의 계획성과 학우들과의 결합력

여학생운동에서 지난 시기 벌여왔던 투쟁들은 성고문 투쟁, 에이즈추방 미군철수 투쟁, 문목사님 환영투쟁, 이 경현학우 방패 살인 규탄 투쟁, 청춘참가투쟁, 취업차별철폐투쟁등입니다. 이를 평가해보면

첫째, 아직까지 여학생운동 독자적인 강령적 내용을 정식화시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학생운동이 어떤 투쟁을 벌여 내야할 지를 주체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여성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끈질기고 힘있게 벌여 여학우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불어넣어 자주적인 여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구국 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이 해야 할 바를 넓은 시야로 찾아내고 그 속에서 여학우들의 투쟁의지를 여학생회로 모아내어, 여학우들의 정치의식과 투쟁력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둘째, 투쟁을 상층간부의 선도적 정치투쟁으로만 유치시켰을 뿐, 광범한 학우들에게 내용을 자각하게 하고 투쟁에 떨쳐나서게 하는 준비된 투쟁을 벌여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치투쟁이든 여성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위한 투쟁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였습니다. 정치투쟁의 경우는 특히 일회적 투쟁이후에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조직 자체가 소진 상태에 빠져 버리는 상황이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여학우들이 자각을 가지고 투쟁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식을 상승발전 시켜낼 세심한 계획을 내오지 못한 채 투쟁의 당위적 필요성 속에서만 투쟁을 고민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3) 운동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주체의 활동 수준

대부분의 여학생회 간부들은 투쟁속에서 대중들에게 용립되어진 지도부가 아닙니다. 여학생들이 독자적으로 투쟁을 해낸 경험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투쟁경험은 전반적인 인식의 부재를 야기하며 투쟁지도부가 확고히 정립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여학생 대중을 지도, 조직화 해야 할 간부조차도 능수능란한 전술구사와 집회, 가두투쟁 지도력, 선전선동력 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간부들의 투쟁지도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조직적 훈련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5.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을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와 지속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대중조직을 건설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앞서 논의하였듯이 여학생운동의 전개양상에 있어서 조직화의 형태는 여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인 여학생회임을 전제로 합니다. 상충만 존재하고 있는 조직은 아무리 뛰어난 간부가 사업을 전개한다 할지라도 대중으로부터 강제받을 수 없으며 대중과 괴리된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중조직을 건설해내고 그것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대중 스스로의 투쟁속에서 조직이 건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도부는 대중투쟁을 위한 계획을 세심하게 내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여학생운동 독자의 강령적 요구를 명확히 정식화해내야 합니다. 이는 우리사회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문제를 철저히 이해하고 파헤쳐 그러한 문제로부터 여학생대중이 촉구하는 총체적인 변혁의 지향점을 명확히하고 그 도정 속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해야하는가를 생산해냄으로써 가능해지며, 이런 작업들을 여학우대중의 실천투쟁 속에서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위의 두 가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 간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학생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간부들의 고민이 고립분산적으로만 진행될 뿐, 이것이 집단적으로 논의되지 못함으로 인해 문제의식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거나 개별적인 문제로만 국한되어버린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운동을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주체들이 함께 고민을 해결해나가고 관점을 통일시켜내려는 노력이 엄청나게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조직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구현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단위 학교에서도 여대협에서도 이 원칙은 운동주체들의 주체다운 자각 속에서 관철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야만 중앙의 지도력도 확보되고 기층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속 동지 구출 투쟁에 대하여

(차례)

1. 들어가는 말
2. 구속...투쟁의 성격
3. 구속...투쟁이 가지는 의의
 - 1) 학생회 강화, 사수의 측면에서
 - 2) 민중 여성과의 연대의 측면
 - 3) 여학생들의 의식화, 조직화 측면
4. 구속학우 구출 투쟁의 전개 계획

1. 들어가는 말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싸우다 적의 포로가 된 동지를 있는 힘을 다해 구출하고 지지,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집단성과 뜨거운 동지애를 배우고자 하는 노동 형제들을 보면, 구속 동지 구출, 해고자 원직 복직을 아주 힘차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열차 머리에 "구속 동지구출, 해고자 원직 복직" 구호를 붙이고 다니며 가슴에 리본을 달고 다니는 지하철 노조 조합원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현대 중공업 노동자들은 노조 위원장이 높은 형량을 받았다고 이에 항의하여 이틀동안 2천여명의 조합원 전원이 태업을 했었습니다. 어떤 대기업 노동자는 구속된 노조위원장이 다른 지방의 교도소로 이송될 때, 조합원이 이송되는 길을 막아서고 싸워 위원장이 마이크를 당당하게 연설까지 하며 이송되었습니다. 이런 노동 형제들의 하나된 투쟁을 볼 때 우리는 모든 조합원이 노조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히 뭉쳐 있음을 확인하고 굉장히 가슴든든해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동안 어떠했습니까? 노동 형제들은 임부가 가열화될때 구속결단식을 하면서 모두가 하나되어 결사항전을 하며 구속된 동지들에게 집단적인 구출투쟁과 지원 사업을 해나갈 결의를 다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로 돌아와 보면, 구속 이후에는 그 어려운 가족 문제, 투쟁의 결의를 잃지 않고 투쟁 의지를 다지는 것 등이 모두 구속자 하나에게로 멀어지고, 구출 투쟁은 매우 미약하며 지지, 지원사업 역시 간헐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한 학우가 구속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머리 속에서 지워지고, 현 실정에서 구속이란 참으로 소중한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는 구속의 경험을 학우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후배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92,93년의 대격변기를 맞으면서 전 민중이 결사투쟁의 의지를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 전 민중의 혈연적 연계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학생운동 역시 탄압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학우들의 결사항전과 피로 뚫어진 동지애가 필요합니다. 이는 구속동지구출투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동지구출투쟁의 성격을 규명하면서 논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구속동지구출투쟁의 성격

이는 89년말 법대협·민가협·여대협이 벌였던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90년 초 관악 총여학생회가 했던 구속학우구출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일일찾집'을 통하여 고민되

취업 차별 철폐 투쟁에 대하여

1. 들어가며

89년 서울지역 여학생 대표자 협의회에서는 취업 차별 철폐 투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학우들의 절박한 요구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개인적인 해결방식이나 두터운 취업 차별의 벽 앞에서 제념해야 했던 현실을 박차고 조직적인 투쟁으로 취업 차별의 현실을 타개해나갈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대생에게 원서조차 주지 않는 4개 기업(신도리코, 동아제약, 대한생명, 대한교육보험)을 고발하면서 취업 차별 철폐 투쟁은 광범위한 사회여론을 불러 일으켰으며, 취업 차별 철폐 투쟁의 주체로 여대협이라는 조직이 사람들 사이에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취업 차별 철폐 투쟁에는 많은 문제점 또한 있었습니다. 지적해 본다면 첫째, 여학생 운동의 자기 전망과 내용 속에서 취업차별 철폐 투쟁이 어떤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가 매우 막연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곧바로 취업 차별 철폐 투쟁을 어떤 관점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당장 취업차별 철폐 투쟁이 가지는 그 자체의 목표, 취업에서의 남·녀 차별을 없애고 대졸 여성의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투쟁을 통해 각성되고 변화한 주체들에게 이후 어떠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문제도 매우 막연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로, 구체적인 투쟁 전술에서 치밀하지 못하고 즉자적으로 입안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 고용 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서명 운동의 경우, 그 이전의 고발전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고평법 개정 운동에 어떠한 전망을 가지게 될 것인지등의 문제가 뚜렷하지 않은 채로 제기되었습니다. 셋째로, 상충위주의 사업이었다는 점입니다. 중앙대의 경우 이 투쟁을 통해 소극적이었던 여학우를 변화시킨 예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여학생회 간부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떠한 투쟁도 주체의 상태와 그 주체의 통일된 발전을 위한 전망 속에서 배치되었을 때만이 주체의 힘의 상승 발전 속에서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할 수 있고 투쟁의 구체적 목표 또한 쟁취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취업 차별 철폐 투쟁에서 위의 원칙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졌는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면서 취업 차별 철폐 투쟁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2. 취업과 사회진출

취업도 하나의 사회적 문제입니다. 사회적 문제인 이상 그 문제를 둘러싸고 지배계급과 이에 맞서는 변혁세력의 의도는 각기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계급적 성격을 가지게 되며 취업을 둘러싼 지배세력의 구도와 변혁하고자 하는 세력은 각기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자기의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지배세력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면서 취업이라는 문제를 통해 체제 순응적이고 양순한 인간을 사회체제 내에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실업자군을 형성시키면서 취업의 경쟁률을 높이고자 할 것이며, 각종의 차별을 통해 취업을 둘러싼 분열이 일어나기를 획책하게 될 것입니다. 경쟁사회에서 탈락한 다수의 노동자 실업자를 양산하고, 소수의 선발된 흠없고 순응적인 인간만이 경쟁 속에서 선발되어 지배체제 속에 합류시키는 과정은 지배자에게는 가장 구미가 당기는 체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

니다. 이러한 사회 질서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변혁 운동 세력은 취업에 있어서 또다른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 입장이란 지배질서에 순응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진출보다는 변혁운동에 의식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의식되고 조직된 힘으로 진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최근 몇년 사이 일어나고 있는 '애국적 사회진출 운동'은 이러한 시도의 일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관문인 취업에 있어서도 취업이라는 시기를 포착하여 시도하는 체제 순응화의 의도를 집단적인 힘으로 깨뜨려 나가는 것이 현실을 변혁하고자 하는 인간이 취업을 바라보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취업시의 분열책동에 말려들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을 둘러싸고 이렇게 상이한 입장이 있을때 하나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를 준비하는 조직적 주체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시점에 위치하고 있는 취업의 문제 바로 이러한 주체가 추동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즉 사회 변혁적 입장에서 기존의 지배질서를 허물어 뜨리고 취업을 둘러싼 지배자들의 의도를 분쇄해 내고자 하는 이러한 자각 위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취업과 사회진출을 고민하는 주체가 뚜렷이 서고 그 주체의 통일적인 자기발전과 전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취업 차별 철폐 투쟁이 전개되었 때 취업 차별 철폐 투쟁 또한 장기적이고 완강하게 지속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취업 차별 철폐 투쟁의 몇가지 조건들

취업 차별 철폐 투쟁의 발전정도는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그러한 주체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마련되었는가에 의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상충 위주 사업의 후과로서 이 투쟁의 주체는 그렇게 튼튼하게 마련되고 있지 못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해도, 다시 말하여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힘에 대한 진단보다는 투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87년 이후 대중의 의식에 혁명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자기 권리에 대한 자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대생도 이에서 예외는 아닐 것이며, 작년에 이 투쟁에 대해 여학우들이 보여 주었던 높은 가능성과 열기는 이 투쟁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최근 2-3년 사이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취업에 대한 문제가 그만큼 절박한 사안으로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취업을 둘러싼 여대생의 요구가 그만큼 절박해질 것이라는 것과 함께 남학우, 그리고 취업에의 요구를 갖고 있는 타 계급계층에게도 같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간의 여성 운동의 성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쟁취하였고 합법적인 영역에서 투쟁할 수 있는 가능성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법 투쟁은 광범위한 대중이 참가하기에 유리할 조건을 만들어 주며 성과를 구체적으로 쟁취함으로써 투쟁에의 힘찬 승리감을 얻기가 용이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취업차별철폐 투쟁에서는 합법적인 조건의 활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후 전망

취업 차별 철폐 투쟁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대졸 여성과 대졸 남성의 취업 차별을 없애고 여대생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내는 투쟁입니다. 이 투쟁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계층의 독자적 요구에 기반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투쟁은 광범위한 대중에게 자기 권리에 대한 자각을 불러 일으키고 투쟁의 경험 속에서 단결승리의 신심을 얻게 하는 것을 주요한 성과로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은 대대적인 의식화, 조직화 속에서 광범위한 대중을 동참시키는 투쟁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으로 위치지워질 것입니다. 학생이라는 처지-자체의 의식성으로 인해 정치 투쟁과 민주주의적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을 배치해낼 수 있는-와 맞물리면서 취업차별 철폐 투쟁은 항상적으로 중심적인 투쟁의 사안이 되기보다는 대대적인 교육 선전작업과 함께 자체의 자기 전망을 가지면서 1년에 1-2회 정도 집중적인 투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취업 차별과 사회 속에서 부딪히는 남녀 차별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여 이 사업의 공감대를 넓히고 장기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주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검찰에 계류 중에 있는 기업 고발투쟁을 승리적으로 맺으면서 취업차별이 실질적으로 철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직접취업에서의 차별을 당한 주체들이 투쟁할 수 있도록 조건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투쟁의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투쟁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후 장기적인 투쟁의 발전 전망은 광범위한 여성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개정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취업에서의 성차별 이외에도 여러 부당한 차별 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두 가지 축을 생각할 수 있으며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